

# 국내 상위 30사 일본보다 3배 저평가

증권거래소, 30사 ROE 16.91%에 PER 15.52배 ... 배당수익률 높아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30개기업은 일본의 시가총액 30대 기업보다 수익성이 좋은 데도 기업가치는 3배 이상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9월25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한국의 시가총액 상위 30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6.91%로 일본의 11.34%보다 높았으나 주가이익비율(PER)은 일본 상위 30사가 평균 53.46배로 한국의 15.52배의 3.44배에 달했다.

한국/미국/일본의 배당수익률 상위10사 (단위: %)

한국		미국		일본	
회사명	배당수익률	회사명	배당수익률	회사명	배당수익률
S-Oil	7.10	Verizon Communications	4.42	NTT Tokkomo	2.22
KT	7.10	Bank of America	4.27	Nissan	2.19
SK텔레콤	4.80	Altria Group	4.17	JFE Holdings	2.19
POSCO	3.90	AT&TINC	4.15	Kansai Electronic	2.19
KT&G	3.54	Wachovia	4.04	Chubu Electric Power	1.94
SK	3.50	Citi Group	3.93	Mitsui Corporation	1.88
한국전력공사	3.00	Merck	3.62	Tokyo Electric Power	1.78
KTF	2.50	Chevron	3.42	Astellas	1.69
기업은행	2.30	Pfizer	3.37	Nippon Steel	1.66
우리금융지주	2.00	Wells Fargo	3.09	Canon	1.65

ROE는 자기자본 대비 순이익 비율로 높을수록 투자한 자본에 비해 많은 이익을 거두었다는 의미이고, PER는 1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 비율로 낮을수록 실적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 돼 있음을 나타낸다.

배당수익률과 주가등락률에서도 한국 시가총액 상위 30사가 일본의 시가총액 상위 30사에 비해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 주가 대비 배당금 비율을 나타내는 배당수익률은 한국이 1.85%로 일본의 1.30%보다 0.55%p 높았다.

2006년 들어 주가 상승률도 한국 상위 30사는 9.71%로 일본의 5.39%보다 높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재무상태나 투자이익면에서 월등한 한국기업이 증시에서는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고 설명했다.

저평가 상태가 지속되면서 한국 시가총액 상위 30사의 시가총액 규모는 416조4450억원으로 일본의 1403조7220억원의 29.67%에 불과했다.

또 한국 시가총액 상위 30사의 시가총액은 일본 상위 4사(토요타자동차, Mitsubishi Tokyo Financial 그룹, Mizuho 금융그룹, Sumitomo Mitsui Financial 그룹)의 시가총액 합계인 469조7710억원보다 적었다.

한편, 미국 시가총액 상위 30사는 ROE(21.42%), PER(17.46배), 배당수익률(2.32%), 주가등락률(11.06%) 등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좋았다.

미국 시가총액 1위인 ExxonMobil의 시가총액은 무려 359조9020억원으로 한국 시가총액 상위 30사 시가총액의 86.42%에 육박했고, 미국 2위인 GE의 시가총액 341조3870억원을 더할 경우 한국 상위 30사를 훌쩍 뛰어넘었다.

개별 기업별로는 국내기업 S-Oil의 배당수익률이 7.10%로 한·미·일 시가총액 상위 30위, 총 90사 가운데 가장 높았고, 역시 국내기업인 SK네트웍스는 ROE와 주가상승률이 45.93%, 120.00%로 수위를 기록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연 기자) <저작권재(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9/25>